일 주 문



영화사 필리핀 구호기금 전달

서울 영화사 회주 월주 스님은 11월 26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태풍재난 구호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신흥사 자비나눔 대법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12월 13일 오후 6시 속초 마레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자비나눔대법회를 개최한다. (033)636-7044



나눔결사 주지 진산식

서울 도선사 제10대 주지로 부임한 송산 도서 스님은 12월 3 일 '저소득층 돕기 나눔결사' 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다.

"붓다 고행상 닮는 것이 수행"

청전 스님, 11월 24일 상도선원 법회서

달라이라마는 붓다 고행상 모셔
깨달음보다 구도 과정이 중요해
인도 다람살라서 '26년' 째 정진



"절에 가면 흔히 모셔져있는 금동불은 붓다가 된 이후의 영광스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고 붓다가 되기 이전의 고행상입니다. 붓다 되기 이전을 닮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 청전 스님이 11월 24일 서울 상도선원에서 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수행자로서 지녀야할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청전 스님은 "수행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훌륭한 스님들과 부처님은 고행과 가난을 바탕으로 공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행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필요하다고 갖추기 시작하면 우주도 부족한 게 사람이다. 이런 탐진치를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며 이는 꾸준히 매일 반복해 나가야 한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쉼없이 정진해나가길 바란다"고 청중들을 격려했다.

또한 "수행자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육신이란 인연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가 없다. 히말라야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빈약한 음식으로 수행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당뇨나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다. 계속해서 "덜먹고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 수행"이라며 수행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1시간여 이어진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은 약 100여명. 발 디딜 틈 없이 법당을 채운 사람들은 일어서서 스님 말을 경청하기도 했다. 법문 후에는 참석자들과 청전 스님간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수행을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이 다수였다.

성심성의껏 답을 해나간 청전 스님은 "부처님 법을 꾸준히 실천해나가려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환희심이 크게 난다"며 "근래에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한 건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중들은 스님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인 성각(52)씨 또한 "오늘 법문을 통해 수행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청전 스님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청전 스님은 "그동안 비구로 살아오며 공부를 이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러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다"며 "생사문제를 해결코자 떠났던 순례길이 그대로 삶이 되어 영혼을 맑혔다. 맑디 맑은 스님들과 함께하다보니 제가 참 행복한 스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스승 달라이 라마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에서 순수하게 공부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담담히 덧붙였다.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라는 책을 최근 발간, 지난달 말 방한했다.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때 대학을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을 걷다 구산 스님과의 만남 이후로 송광사로 출가했다. 그 후 참선수행을 하다 수행과정 중의 의문을 풀기 위해 순례길에 올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정착, 26년째 달라이 라마 제자로서 공부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전순표 세스코 회장, 동국대에 3억원 기부



세계적 방제기업인 세스코 전순표 회장이 모교인 동국대에 바이오도서관을 조성해달라며 3억원을 기부했다. 전순표 회장은 11월 27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한 후 3억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안직수 기자, 12월 14일 〈세입클로버〉 출판기념회



안직수 불교신문 차장은 12월 14일 오후 2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행복을 위한 고민을 담은 〈세잎클로버-기성세대를 위한 질문 30가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11월 28일에는 교계 선배들과 조촐한 축하모임을 가졌다.

"장학금 증자 위해 법인화 계획"

12월 7일, 김흥국장학재단 제14회 장학금 전달식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홍보도 잘 안했는데 어떻게 알고 천원, 이천원씩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12월 7일에 열리는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이 어느덧 14회를 맞았다. 김흥국 씨〈사진〉는 올해 화계 초등학교 6학년생인 조민호 군 외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로가수 이갑돈 씨에게도 지원금 100만원이 전달된다.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고 입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넉넉해진 지금 회향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리라 고요."

후원해 준 어린이가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지 않냐는 질문에 "물론 궁금하죠. 그렇지만 아이들 자존심 상할까봐 섣불리 나서질 못한다"고 대답하던 그는 "그래도 누가 압니까. 나중에 곡주 만드는 사장님이 돼서 나타나 '앞으로 김흥국씨 술은 제가 책임지겠다' 고 말하는 날이 올런지요"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평소 애주가로 소문난 그다운 농이었다.

"한번쯤은 그동안 후원한 아이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보고도 싶지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괜히 제가 상을 내는 것 같거든요. 장학금을 전달할 때 아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나한테 편지 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는 아저씨를 잊어버리는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면 족하다' 고요"

그간 불자로서 봉사활동은 물론 각종 재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펼쳐온 그는 장학금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재단의 법인화를 계획 중에 있다.

김흥국장학재단은 2000년 1월 설립, 135명을 후원해왔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03-21-0319328 **배현진 기자**

조계사 입구에 현대적 사천왕상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11월 2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100여 대중과 함께 사천왕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사천왕상은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인레스 조각을 이어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사천왕상 조성에는 3년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덕현 기자**

〈인사〉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임명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 강순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이 최근 임명한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강순형 소장은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국립중앙박묵관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독송회 티베트 청소년 돕기

사단법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11월 14일 아름다운 동행에 티베트 난민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전 세계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수행 단체다. 포교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배포, 순국선열 추모법회를 꾸준히 봉행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 지부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73년 설립된 이후 18년째 매년 1000만원씩 불우이웃 성금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청우불교원의 자비나눔 기금 전달은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기부금은 회원들이 금강정사에서 메주, 된장, 참기름 등 전통음식을 생산하고 옷가게 등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승가종 논산훈련소 위문법회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은 11월 2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거나 힘들때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승가종은 이날 호국연무사 주지 현조 법사에게 위문품 및 법당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